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장효근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29호 2009년 8월



INDEX

2 변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3 건강도시와 교회의역할
4 · 5 춘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신앙의 고향
9 제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11 생명, 하나님이 주신고귀한 선물



13 루터 (Luther)

변화(Change, 變化),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글/ 손 규 하 목사
(현, 부산성시화운동본부 공동부본부장/부산 평화로교회 담임)

"Change" 이것은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를 이기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대통령을 당선케 한 민주당의 슬로건이다. 오바마가 외친 "변화"라는 구호는 76%이상의 미국인들이 기다린 시대적인 요구였고, 232년의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백인 우월주의의 오랜 전통을 뒤집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평화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세계 도처에 많은 나라로부터 반미라는 벽을 쌓게 하였다. 심지어 대한민국과 같은 우호적인 나라 안에서도 반미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되면서 많은 친구를 잃어버린 현실에 미국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미국은 변화를 갈망하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지경에 왔음을 오바마의 등극으로 말해주었다. 이것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에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다.

변화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문화명령 곧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거부하는 그 어느 누구도 시대에서 도태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사는 길이 "변화"이고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변화"라는 것은 비단 미국에 국한 된 이야기가 아니요,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사실을 감안해야 문제가 풀려질 것이다. 우리는 시대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 바울이 성령으로 설파한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다"고 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할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체제는 살수 없다는 사실을 얼어붙은 우리의 북녘 땅에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람은 지속적인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한 때 재야에서 사회개혁을 부르짖으며 민주화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을 부르짖던 투사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민주화는 곧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서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는듯한 기대는 실망을 잔뜩 안겨주는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한 탓이다. 자신은 새 시대에 변화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는 자체가 모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인간의 죄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날마다 비우고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은 건물의 설계도와 같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행하는 선과 악이 다 마음에 쌓아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정에서 가장의 마음과 결정이 중요하듯이 한 나라의 미래는 그 시대 세워진 지도자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이란 선진화된 의식으로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 국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과연 선진화된 윤리의식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회인가를 모두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물은 변질된다. 정체되어 있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로서 생명체가 살수 없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볼 때,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변화를 가로막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에 얽매이고 사회적인 통념에 묶이게 되며 기득권을 주장하여 새 날을 막아서는 거북한 자로 남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네 사회에 널리 퍼진 병리현상은 바로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의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란 자기 몸을 깎는 것으로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변화를 통하여 발전을 거듭했다. 옥동자를 탄생시키려면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화는 발전을 예고하는 것이다.

변화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상은 언제나 인본주의로 병들어 왔기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주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개 교회주의와 물량주의로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 심히 걱정된다. 개 교회주의는 곧 기독교 이기주의이다. 내 교회만의 성장을 꿈꾸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교회의 현실 앞에 작은 규모의 교회는 넋을 잃는다. 교회의 성장 곧 부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물어본다.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할 교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숫자의 증가를 부흥이라고 보는 전근대적인 의식이 불량 교인을 양산하고 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현실은 더 높은 도덕의식과 십자가의 희생정신이 함양된 교인을 길러내야 한다는 변화의 견책으로 받자.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 교회의 제도와 관습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의식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의 대안은 성시화운동이다. 성시운동은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발전하는 귀중한 동행이다. 그동안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연합되지 못한 채 개 교회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양적인 성장조차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도 없던 것이다. 진정한 교회발전은 성시운동을 통하여 그 사랑의 에너지가 모이고 넘쳐 세상으로 흘러 십자가의 능력을 끼칠 때 세상은 교회의 영향력 아래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성시운동의 출발지인 춘천에서 변화와 부흥의 기틀을 마련할 때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기대된다.



건강도시와 교회의 역할



글/ 조 무 성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고려대 건강도시연구센터장)

21세기의 화두, 건강도시

춘천시는 2007년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이 되었다. 원주에 이어 강원도에서 두 번째 가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9개국 101개 도시 중 49개 도시가 가입되었다. 뜨거운 열의의 긍정적 면과 함께 내실의 부족의 우려되는 면이 있다. 춘천시는 건강도시를 위해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애쓰고 있다.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라고 정의한다. 전인건강은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이다. 성경적 전인건강은 예수님의 구속의 신앙에 근거한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이다.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비정상적이 되었고, 인간 자신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비정상적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러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그 결과 샬롬인 성경적 전인건강을 누리게 되었다.

행정학을 전공하는 필자는 2005년 3월 서울시에 주최하는 건강도시 국제 심포지움에서 건강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생활행정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향이 바로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건강도시의 핵심개념이 전인건강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이 잘산다는 것은 국민의 전인건강 곧 마음, 몸, 사회 및 환경의 건강이라는 것을 암 투병을 통해서 체득했다. 그래서 건강도시가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건강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연구과제로 연구하게 되었다. 또한 기독인으로서 건강도시와 교회의 역할 포럼을 2007년부터 시카고에서 전인건강학회(www.hha.kr)와 21세기 바보모임(바로보는 모임 www.babo21.org) 주관으로 진행해왔고 한국에서도 지난해 11월 19일 포럼과 바보모임을 뜻있는 분들과 함께 창립했고 춘천에서도 동참했다.

건강도시 운동은 끊임없이 실천해야하는 과정

건강도시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역사적 산물이다. 1984년 캐나다 토론토 심포지엄 "보건을 넘어서(Beyond Health Care)"에서 건강도시의 아이디어가 싹텄다. WHO에서는 유럽도시를 중심으로 1986년부터 건강도시사업을 해왔다.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표적인 건강도시사업이다.

건강도시(healthy cities)는 시민이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최대한 잠재력 개발을 하는데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상부상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 이것은 쉽게 풀어 이해하면 시민의 마음과 몸, 사회 및 환경을 위해 시당국과 시민들이 애쓰는 도시이다. 간단히 말해서 건강도시는 시민의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시이다.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전인건강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도시다. 건강도시는 행정에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건강도시는 산물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상에 완전한 건강도시는 없고 연속선상의 과정에 있고 건강도시의 수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높은 수준에 도달 되었다고 머물러 있고 노력 안 하면 건강도시가 아니다. 문제가 많은 수준 낮은 도시도 전인건강을 위해 힘쓰면 건강도시가 될 수 있다. 건강도시의 의미는 그 특질과 전인건강의 차원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특 질	전인건강차원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환경건강
현재 인정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체제	환경건강
강한 상부상조적이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사회건강
시민의 삶과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시민이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사회건강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욕구 (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과 직업의 충족 노력)	몸, 사회, 환경 건강
다양하고 폭넓은 접촉의 기회와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경험과 자원의 접근	사회건강
다양하고 활력 있으며 혁신적인 시의 경제	사회건강
도시의 과거와 거주자의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함께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연결을 격려	사회건강
이전의 특성과 양립하고 고양할 수 있는 형태 (주: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양립과 조화)	사회, 환경의 건강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공공건강 및 질병치료 서비스	몸 건강
고도의 건강상태 (높은 수준의 적극적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몸 건강

출처 : Twenty steps for developing a Healthy Cities project p.9.의 재구성

건강도시의 특질을 잘 이해하여 기독인을 비롯한 모든 춘천시민들은 춘천시가 시민을 위해 마음건강, 몸 건강사업, 사회 건강사업, 환경건강 사업을 잘하는가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면에서 행정당국에 건설적 비판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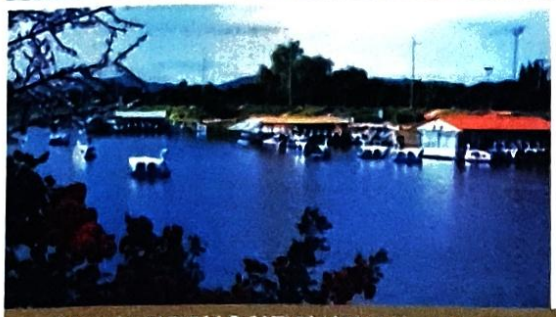
건강도시 운동을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인생최대의 교훈이요 명령이다(막 12:30-31). 건강도시운동은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을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운동이다. 도시에서 추진하는 위의 특질을 갖는 일반적인 건강도시사업과 교회에서 하는 성경적 건강도시사업은 후자의 영적 건강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통분모를 가지기 때문이다(렘 29:7; 마 5:13-16). 따라서 춘천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현재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영적건강사업, 정신건강사업, 몸건강사업, 사회건강사업, 환경건강사업으로 다시 나누고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지 균형이 맞는지 반성하고 점검해야 한다. 기독인 각자가 철저한 회개와 착한 행실을 통해 춘천사회에 빛을 비추는 노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갈 2:20; 마 5:16).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섬기며 춘천의 21세를 '바로 보는' 바보들이 연합하여 핵심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롬 12:1; 고전 1:21,27; 롬 12:2).

이런 의미에서 춘천바보들을 비롯하여 각 도시의 바보들이 많아져서 예수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적 건강도시 사업과 운동을 한다면 변혁을 위한 하나님 나라운동으로서 새마을 운동보다 훨씬 큰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마 4: 17; 20:19, 20).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출발점과 많은 잠재력을 가진 춘천의 성시화를 "성경적 건강도시화"라는 의미내용을 담고 그 축약적 표현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이리떼가 많은 현실에서 비둘기 같이 순결함과 함께 뱀같이 지혜로움을 유지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마 10:16). 성경적 건강도시 건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산물인 샬롬커뮤니티 형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500석 규모의 넓은 홀"
기분좋은 만남! 소중한 추억!
웨미리 뷔페
회갑연 고희연 돌/백일
각종모임 단체모임
출장뷔페 결혼식피로연 잔치음식
※돌잔치 각종 서비스 : 돌상차림, 케익, 돌잡이 이벤트, 돌잡이 용품 풍선장식, 원판사진, 압축앨범or액자, 포토테이블, 빔프로젝트 기타등등
예/약/문/의
☎(033)251-2154
☎(033)251-2158
웨미리뷔페



춘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신앙의 고향

참여자: 김은경(춘천중앙성결교회, JDM파송), 사공세현(중앙장로교회, 광명교회파송), 안지일(프랑스 리옹39교회 담임목사)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호수,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나라를 꿈꾸었던 곳.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의 음성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던 곳.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겁에 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왔던 실패와 쓰라린 영혼의 상처가 있던 곳.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뼈저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부활의 경험이 있던 곳.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잊을 수 없는 흔적이 있는 신앙의 고향이었다.

성시화의 고장, 춘천. 춘천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바울의 뒤를 이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선교사들에게 춘천은 어떤 곳일까. 그들의 마음속에 찍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풍경을 들어보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를 말해 달라.

✲ 김 은 경 (선교지 : 프랑스 리옹)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고등부 선생님과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제자운동(JDM)과 연결되어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선교에 대해 듣게 되었다(85년). 이후 몇몇 고등부 선배들과 모여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가졌다. 어느 날 QT(말씀묵상)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4:18절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중 특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는 말씀이 큰 도전으로 다가오면서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

✲ 윤 종 대 (선교지 : 필리핀 클락)

83년 대학교 1학년 때, JDM선교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있느냐?"고 Calling했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졸업 후 대학생 선교를 위해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93년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중, 우리 부부가 동시에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1994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 사공세현 (선교지 : 필리핀 따끌로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진학을 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의 길이 사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 졸업 후 일본 핫도리 요리학교에 들어갔다. 핫도리 요리학교는 요리분야에 있어서 세계 3대 명문학교에 속하는 학교이다. 당시 요리학교에 들어갔던 이유는 "일식을 배워서 선교사를 돕겠다"는 비전 때문이었다. 3년 동안 요리업에 종사를 하였는데,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국하였고, 목회자이신 아버지께서 매우 염려하시면서 신앙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셨다. 아버지께서 주신 여러 팜플렛 중에 "도시빈민선교를 위한 훈련(USMT:Urban Servant Mission Training)" 프로그램이 있었다. 필리핀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는 내용이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곧바로 3개월간 훈련을 받고 돌아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신대원 3학년 때 필리핀에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필리핀 빈민선교를 위해 헌신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였다.

✲ 최 동 수 (선교지 : 인도 델리)

1986년 처음으로 춘천에 오게 되어 88년부터 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간사로 사역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선교사 이야기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내 자신이 큰 도전을 받았다. 특히 에릭 리틀 선교사님과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많은 감동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 먹었지만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다.

91년도 싱가폴에서 한 주간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지금은 안되요, 다음에 부르시면 순종할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던 중 94년 목사님 두 분과 해외 순회사역을 하면서 네팔에 갔다.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 내 모습을 보고 목사님 한분이 선교사로 나올 것을 권면하셨다. 이후 기도하면 할수록 "선교사로 나오세요"라는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95년 1월,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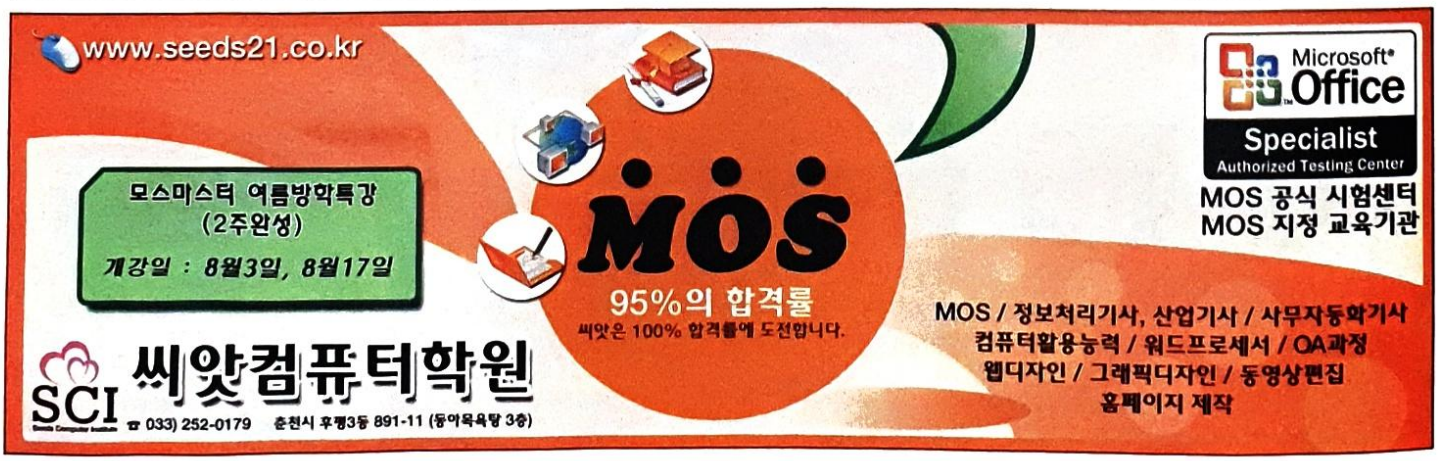
선교지에서 바라보는 춘천은 어떤 영적인 풍경으로 다가오는가? 소감을 말해 달라.

✲ 윤 종 대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로 헌신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강촌에 있는 설곡산 기도원에 갔다. 그 날따라 기도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도원 문은 열려 있는데 원장님도 안계셨다.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갈망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던 중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설곡산 체험은 사역자로서 헌신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탈진하여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두려움과 체념으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설곡산에서 부르신 살아있는 음성으로 늘 한결같이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용기를 얻곤 한다.

✲ 사공세현

사역을 위해 여기저기를 방문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춘천은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라는 사실이다. 물론 일본의 동경이나 필리핀의 마닐라, 선교지인 따글로반도 아름답지만 춘천에는 그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춘천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초등학교 4학년, 한얼산 기도원)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위해 제자로 살 것을 헌신한 신앙의 고향이기 때문이 아닐까? 종종 선교지에서 영적침체에 빠지거나 중요한 결정을 위해 기도할 때면 아내와 공지천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공지천을 생각하고 공지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 "세현아, 초심으로 돌아가라."





윤종대(광장감리교회, JDM파송), 최동수(소양성결교회, 베드로선교센터파송) 최영조(갈릴리교회, 춘천성시신문편집위원장)

✲ 최 동 수

춘천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곳이 한얼산 기도원이다. 물론 한얼산 기도원은 춘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전도협회 사역 당시 매주 춘천복음화와 어린이사역을 위해 철야기도를 했던 곳이다. 잣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의 기도제목은 없어지고 춘천에 대해 기도하게 되고, 춘천의 어린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춘천이 많이 생각난다. 한얼산 기도원과 함께 아름다운 기도의 풍경이 있는 곳은 소양성결교회 기도실이다. 이 기도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키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셨다. 이원호 목사님, 조은제, 기정희 선교사님 부부, 한천수 장로님 등은 잊을 수 없는 영혼의 스승들이다.

✲ 김 은 경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꿈꾸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족과도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다. 중앙성결교회 대학부 공동체는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선배들과 후배들, 그리고 지체들을 만나 교제하며 꿈을 키웠던 곳이다. 이때 경험했던 공동체 경험은 프랑스에서 공동체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감과 창의적인 도전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한 장소가 있다.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이 계단에 앉아서 지체들과 손을 잡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 당시에는 선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서 선교를 말하면 오해를 받곤 했었다.

✲ 안 지 일 (본명 앙자르디지일 / 김은경 선도사 남편)

춘천을 사랑한다. 제 아내의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교를 위해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가 사는 도시 리용은 프랑스도시이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가난한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매우 위험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춘천은 다르다. 올 때마다 느끼지만, 매우 깨끗한 도시이고,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도시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또한 주일날 오전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것은 많은 도전이 되었다. 어느덧 나도 춘천 닭갈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 최 영 조

대학시절을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활동을 하면서 보냈다.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나에게 종종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동기나 선후배들이 찾아와서 새벽 2-3시까지 대화를 나눌 때가 있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느덧 대학시절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풍경으로 많이 기억나는 곳은 강원대 연적지이다. 오전 8시, 수업시작 한시간전에 모여 찬양을 하고 캠퍼스와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였다. 지금도 조용한 캠퍼스의 아침을 깨우던 지체들의 그 기도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연적지 기도모임에 대한 기억은 목회사역에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된다.

앞으로의 선교비전과 기도제목은 무엇인가.

✲ 최 동 수

선교초기에는 빈민가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했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도의 중·상층 어린이전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년간 영국에서 공부하며 몬테소리교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올해부터 델리에서 중·상층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교사들을 훈련시키려고 한다. 학교를 잘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MK(선교사자녀들을 위한 학교)사역도 감당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개인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영혼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선교지에 있을 이유가 없다.

✲ 김 은 경

리용에서 교회를 개척한지 3년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교회개척사역은 너무 어렵다. 선교하는 교회, 제자양육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달라. 두 곳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가난한 유학생들을 전도하여 불어권 선교를 위한 제자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역과 노방전도를 위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린다.

✲ 윤 종 대

현재 예수제자운동(JDM)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27개국 71명에 이르고 있다. JDM 미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 부탁드린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미전도 그룹이 대학 캠퍼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캠퍼스 복음화에 집중해야 하고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로서 평생 동안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 사공세현

프랑스처럼 필리핀에서도 가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번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학교에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선교사역과 함께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아 본이 되는 선교사가정이 되었으면 한다. 아내가 셋째 필립이를 임신했는데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 최 영 조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 82년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아닌 목회자로서 사역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세계선교관학교(MPS)를 섬기게 하셨는데, "선교를 일으키고 선교사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몇 년 전 중국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강의하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크게 부흥하는 경험을 하였다. 춘천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성시화를 이루고 민족복음화의 모델 도시가 되며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춘천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 또한 춘천의 교회들은 모든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 온 세계의 모든 도시가 복음화되고 성시화가 되는 그날의 비전을 바라보며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진행자 : 정재호 / 사진 : 김미경







치유와 회복, 역사성이 있는 교회

춘천시 삼천동에 위치한 삼천동교회는 지난 2008년 8월에 설립에 베를 드린 신생 교회로서 새춘천교회(신제원 목사)의 개척지원으로 창립되었다. 춘천중앙교회(유동선 목사)의 부담임 목사로 4년여를 사역하던 이승구 목사가 초대 목사로 청빙되어 날마다 아름다운 교회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삼천동교회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삼천동교회」(이승구 목사) 편입니다



아름다운 분가(分家)와 이승구 목사

삼천동교회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교회라지만 「삼천동교회」라는 이름은 결코 낯설지 않다. 아름다운 삼천동 전원에 40여년을 일송정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천동교회의 원 역사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7년 6월, 당시 춘천교회(김관수 목사. 현 춘천중앙교회)가 삼천동(당시 삼천리)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삼천리 2개 구역을 분할하여 개척하고 김창길 전도사를 파송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후 인근지역의 개발문제와 주님이 명하신 영혼구원의 절대적 사명을 위해 교회를 이전, 새춘천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흥을 거듭하던 교회는 지난 2008년 5월, 새춘천교회의 임시 사무총회를 통해 자원하는 교우들로 하여금 다시 삼천동교회를 재건하도록 격려하고, 40여명의 교우들이 기꺼이 이 일에 응답함으로서 41년 만에 삼천동교회가 개건되게 된다. 이는 춘천의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교회적으로도 매우 드문 아름다운 분가(分家)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하다.



재건 1대 목사로 청빙된 이승구 목사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강릉제일교회를 거쳐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원주제일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 행정, 교육 파트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였다. 이 목사가 지난해에 삼천동교회로 청빙을 받은 것은 목회적 연륜이나 시기적인 면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목사는 회고한다.

역사성 있는 교회, 역동성 있는 교회

삼천동교회의 지난 1년은 자리매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이 되었다. 태신자 전도운동, 경로효도를 목적으로 한 지역주민 초청 잔치, 쉐마 교육을 통한 가정예배를 강조함으로 짧은 기간 내에 어린이주일학교를 포함 100여명이 예배하는 건실한 교회로 자리 잡았다.

선교의 장으로 활용되는 교회 축구팀도 전도와 교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의 청장년으로 구성된 「쉐마 FC 축구단」은 관계전도중심 전도의 가능성과 젊은 남성교우들의 교제, 정착, 발전의 도구로 사랑받고 있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축구팀인 「리틀 쉐마 축구단」은 창립 후 교단 내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열정과 실력을 두루 갖추었다.

삼천동교회는 설립 초기 "비전 3000"이라는 공동의 꿈을 선언문으로 담아 공포했다. 이는 10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이 목사는 **"우리의 꿈은 상처받은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 용납, 도움, 희망, 용서,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은 춘천에 사는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차 3천명이 넘는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2017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와 기도, 상담과 교육, 체육시설을 갖추어 성도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입니다"**라고 소개한다. 이 "비전 3000"은 주일 예배시 공동으로 대표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며, 구역 예배에는 이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다.

더 위대한 미래를 향해

앞으로 춘천시의 청사진을 보면 삼천동 지역의 "그린 타운"(Green Town)화와 함께 첨단 체육시설, 복지시설, 녹색산업 등이 이 지역에 유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승구 목사와 전 교우들은 지속적으로 기도운동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고, 인근의 호반요양병원과 장례예식장을 통한 복음전파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승구 목사는 얼마 전 새벽기도회의 차 운행을 섬기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량 4-5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대형 사고였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모든 치리가 마무리 되었고, 이 목사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회는 8월 말에 홈 컴잉데이(Home Coming Day)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중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삼천동교회를 거쳐 가고 사랑했던 분들을 모으는 일뿐 아니라 신앙의 휴식기에 있는 자원들을 재 헌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건 삼천동교회의 초대 사역자로 섬기는 이승구 목사와 충성스런 주님의 일군 이청섭 장로, 그리고 온 교우가 합심하여 삼천동 복음화와 춘천을 섬기는 이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본다. [취재 최상도]



춘천장로교연합회 명패 붙이기 운동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합시다!

춘천장로교연합회에서는

춘천지역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춘천장로교회원교회의 명패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교단 및 교회(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010-2061-2161(장로교연합회 총무 김원중목사)

※ 춘천장로교연합 교회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센/터

방문요양 · 방문목욕

에벤에셀





센터장 박 철 훈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80-5번지
사무실 : 033-251-9184
핸드폰 : 010-4570-5902
E-mail : chulhun@hanmail.net

| 영혼의 양식

좋은 날은 옵니다

(히브리서 13:20-21)



이정하 목사
(제자순 복음교회)

요즈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곧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카타르티조로 "충분하게 공급하다" "부서지고 찢어진 것을 수선하다 조절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 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일 곧 민족을 위해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고난의 터널로 집어넣으셨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든 13년간의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의 영광의 계획이 성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2.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그러나 곧 부활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으나 로마의 복음전함의 뜻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를 그 광풍에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상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고후4:8-9).

3. 즐거운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은 모세에 대한 진술인 이사야 63장 11절을 인용하여 미디안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낸 모세를 유형론적으로 해석하여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자유 곧 예배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도록 그들을 가나안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즐거운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즐거움은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말함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 십자가라는 산고를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자하시는 것이며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 사색의 장

노후대책보다 사후대책을 위한 삶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소망과 생명을 전해요!

이무식 장로 (석사교회)

2004년, 어느 날 우리 부부는 강촌교를 지나 어느 노인전문 요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사할린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시설은 깨끗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보였다. 요양원에 입원하면 어느새 서글퍼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보다. 세상과는 단절되고 소외된 삶을 살게 된다. 가끔씩 위문을 오지만 잠시잠깐 웃다 울다기, 가고 나면 또 허전함으로 슬픔이 가득하다. 밤에 장자리에 누우면 지나간 인생살이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후회도 막심하다. '괜히 내가 이곳에 잘못 왔구나!' '내 신세 내가 망쳤구나!'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다.

어느 사골에서 혼자 살다가 아들며느리가 서울로 와서 함께 살자고 간청을 하기에 아들집으로 들어간 할머니가 있었다. 처음에는 반갑게 지냈으나 길수록 불편하기가 짝이 없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1,2,3,4,5,6…번의 번호 사용을 가만히 숨어들었다. 알고 보니 1번은 손자, 2번은 아들, 3번은 며느리, 4번은 강아지, 5번은 도우미아줌마, 6번이 본인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골찌 식구밖엔 안되는구나, 너무나 서글픈 마음에 그는 돌아간 영감님과 평생 살던 집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라고 메모를 남겨두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각종의 종교인들이 모여 있다. 무속신앙인들도 많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런 종교적 신앙의 힘을 더 이상 얻기가 힘들었다. 병든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기기도 불편하다. 사후대책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 그지 환자생활로, 때가 되면 먹고 밤 되면 지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이 바로 이 요양원의 삶이었다. 신앙인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의 결과기 겨우 요양원 시설 확장과 편의시설 설치수준으로 끝난다. 더 이상은 할 수도 없다. 자식들은 부모가 병들고 모시기 힘들다고 너도나도 요양원으로 보낸다. 그러고 보니 요양원은 죽음의 대기소 역할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때 나에게 영감이 왔다. "저들의 영혼은 누기 책임지나,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모르지만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우리 부부는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짰다. 10여 가지의 각종 악기 연주로 노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과 가요로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 육신과 영혼, 희망과 소망, 노후대책보다 사후대책의 중요성, 죽음과 심판 등의 내용으로 강의와 설교를 하였다. 천국과 지옥의 삶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자 거부감을 보이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부부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로 이 죽음의 대기소를 소망과 생명의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광림 및 양지요양원, 남강재활원, 순복음춘천교회, 춘천 및 전국의 교회 선교 경노잔치와 찬양집회 등 매월 10회 정기적으로 전도공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삶은 노후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을 위한 삶이다.

★독자 투고 사색의 장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유흥천 장로 · 박옥화 권사 (온누리교회) 부부편



"간증을 할 게 없는데 간증을 부탁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락했지만, 성시신문을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유흥천, 박옥화 권사부부를 자택에서 만났다. "나는 특별하게 병이 낫거나 실패를 겪었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간증이 되겠냐"고 하며 "간증이라면 하면 이렇게 사고 없이 평생을 한 결 같이 지켜주신 것이 간증"이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그 오랜 삶의 여정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키시고 보살펴 오신 것은 사고와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참 감사하고 큰 은혜구나' 라고 다시 깨닫는다.

새로운 변화

모태신앙이었지만 중간에 외도를 하면서 세상을 즐기던 유흥천 장로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된 것은 지금의 박옥화 권사를 만나면서부터이다. 조부께서 교회를 창립하신 3대째 신앙가문이었지만, 그리 신앙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결혼 후 가정생활은 행복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 것은 15년이 지나서였다. 1985년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 받고 술도 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일평생 새벽제단을 쌓겠다고 결심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다. 사는 것 또한 너무나 즐거웠다고 한다.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유 장로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 미쳤니?"라고 이야기하면 "어, 나 미쳤다"(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우스개로 이야기할 만큼 신앙생활이 즐거웠다.



닮살부부(?)

요즈음에는 좋은 부부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렵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내면을 보면 상처투성이인 것이 현 가정의 현실이다. 하지만 유 장로-박 권사 가정을 보면서 참 행복한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칠순이 내일 모레인 유 장로는 아직까지도 환갑이 넘은 아내 박 권사에게 "이쁜 색시"라고 부른다. 옆에서 보기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이 창피하게 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참 자연스러워 보인다. 교회에서도 유 장로는 아내 박 권사를 꽃이라고 부른다. 이름의 끝에 "화"자가 붙어서 말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란다.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에서 참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사랑의 헌신

유흥천 장로는 매일 새벽 3시30분이 되면 기상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당을 청소하기 위해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시간이면 교회에 가서 미리 기도하고 청소를 시작한다. 2000년 12월 5일 본인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장로로 장립을 받았다. 장로 장립을 받으면서 교회청소를 하겠다고 서원했다. "일반 상점에서도 문을 열려면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받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또 새벽에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하러 오시고 성도님들도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만나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한다.

그 서원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교회를 청소하고 있다고 한다.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참 행복하리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청소하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박옥화 권사의 짧은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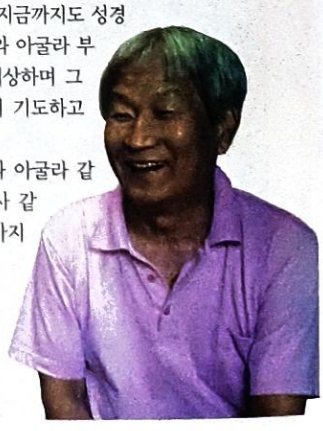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 박 권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너져 가는 학원을 인수받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처음 인수받을 때 25명의 학원생의 수가 한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엔 80명이 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300명이 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점점 번성하면서 십일조의 액수가 점점 커지자 십일조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으로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데는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 일로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십일조뿐만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위한 일엔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 더 큰 은사와 은혜를 많이 주셨다. 지금은 두딸이 다들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나고 보면 하나하나 다 채워지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면에 싣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에 대한 자랑과 교회에 대한 자랑이 대부분이었다. 훌륭하신 목사님과 좋은 교회라는 자랑 속에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감사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교회의 많은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스러운 성도! 너무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두 부부를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생각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사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다.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 역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은혜며 축복이다. 2000년이 가까이 지난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며 그들의 삶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오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유흥천-박옥화 권사 같은 부부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취재 유병준,
진행 정재호,
사진 김미경









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영적지도자의 바람직한 물질관



글/ 문 춘 화
(크리스천 재무컨설팅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교회 목회자의 물질관

'한국 교회 목회자의 물질관'이라는 어렵고 힘든 주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본다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돈에 대한 이해"라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물질관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돈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을 통해서 진단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돈을 추상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정의 내려왔기 때문에 교회가 돈으로 인해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 아니면 나쁜 나무일까 하는 질문을 종종 한다. 그러나 선악과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가치중립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돈을 본다면 돈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치중립적인 도구일 뿐이다.

돈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도 돈이 경제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돈 없이 경제와 재정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물질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인은 영원히 물질을 멀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야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 대한 이해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돈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돈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오히려 돈에 대한 청지기로서 한국 교회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 한국 교회는 돈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많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방송에서 언급되는 몇몇 대형 교회의 문제가 모든 교회의 문제처럼 치부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교회들이 돈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청지기임을 스스로 자각해야할 것이다. 하나님께 사용권을 얻은 것에 불과한 인간이 마치 돈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교회는 더욱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확대해 가야 한다. 투명하지 않는 교회 재정, 끝없이 이어지는 건축 등에서 벗어나 신약시대 초대 교회가 물질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초대 교회를 비추어서 한국 교회의 바른 재정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편리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의 재정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여겨진다.

청지기로서 한국 교회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야…

목회자 개인의 재정 문제 진단

그동안 많은 목회자를 만나서 재정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재정에 대해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어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에 대한 문제이다.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재정적인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둔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5년 후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회의 비전이나 성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듣게 된다.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물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살겠다고 한다. 물론 목회자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CEO와는 분명히 다르다. 영리나 출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못하다.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렵게 사역을 해가고 있다.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것의 의미를 한번 되 집어 보겠다. 2명의 자녀를 둔 30대 후반의 한 목회자는 10년 넘게 사역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바로 물질적인 문제였다. 외부로 사역을 많이 다녔지만 항상 사례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많은 빚을 지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는 커졌고 결국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모님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고 가정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목회자의 사례에서 봤을 때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했을 뿐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됐다. 이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서 더 사역에 집중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 믿었다. 분명히 본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목회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이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 중에는 재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된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비판하거나 폄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목회자들을 존경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재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주변의 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준비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미래에 대해 계획할 수 있다. 이제는 믿음의 문제뿐만이 아닌 지혜와 지식의 문제로 바라보고 가정의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문춘화 016-586-9608]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버지학교 설립이사(스텝) (서울동부13기수료)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예수 안에서 본 예술



현철주 /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콜라쥬 / 65.5×45.5cm / 1996년

〈작품설명〉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작가들은 작품을 제 몸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오랫동안 몸의 아픔과 장애, 그로 인한 불편과 소외, 절망의 경험을 겪은 작가 '현철주'의 작품 속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일그러진 형상이 곧 자신의 모습으로 여겨지며, 부르짖는 입과 그들을 만지기 위해 다가오는 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작품 감상조차, 아니 작품의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화면속의 주인공은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편집위원 이관형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합심기도

손에 손잡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해 보셨나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디서든 무엇이든
간구해 보셨나요

날마다 가정과 교회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온 정성 온 힘으로
어디서든 무엇이든
간구해 보셨나요

한 마음 온 정성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간구해 보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대와 나
손에 손잡고
두 손을 모으면

- 시. 김 장 기 (춘천한길교회 권사)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20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 H1N1)를 대비하자!



고석연
(가정의학과)

전 세계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인플루엔자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7월 24일 확진된 누적 환자수가 1,093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고 외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발병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도 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이 된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가 이토록 신종인플루엔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스페인 독감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1918년부터 1919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적게 잡아도 전 세계적으로 20,000,000명(이천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140,000명(십사만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새로운 인플루엔자의 출현에 전 세계가 긴장할만하다. 그나마 이번 신종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이 0.4%에 그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독감은 겨울철에만 유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플루엔자란(influenza di freddo;추위의 영향;이탈리아어) 이름도 이러한 특징에서 유래했다. 여름에는 사라지고 겨울에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쉽게도 현대 의학도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지금은 여름이라 신종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지는 않지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겨울에는 대유행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적인 백신의 확보이다. 그러나 생산에 비해서 전세계적수요가 워낙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번 가을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이지 큰 문제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독감에 취약한 노인과 소아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이 먼저 접종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우선 접종 대상이다. 그래야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양보와 지혜가 필요한 때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국가적인 백신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있다. 바로 '손 씻기'이다. 올바른 손 씻기는 전염성 질환을 60-70%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독감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예방백신의 효과가 50-70%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손 씻기의 예방효과는 독감예방접종의 효과와 비슷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손 씻기'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초 이상 깨끗이 씻는 것이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순으로 씻어야 하는데, 흐르는 물에서 씻는 것이 좋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 가면 올바른 손 씻기 동영상이 있는데 온 가족이 꼭 보아야 할 것이다. 독감은 대부분 손을 거쳐 얼굴을 통해서 전염이 되므로 눈, 코, 입 등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휴지로 입을 가리는 것, 독감에 걸린 사람에게 마스크를 하게 하는 것도 손 씻기만큼이나 중요하고 지켜야 할 일이다.

신종인플루엔자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이나 손 씻기를 강조하는 것은 피라미드 효과 때문이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종인플루엔자를 전파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사람의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대한 예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일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대 다수의 문제이다. 공동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듯이 공동체 한 사람의 회심이 또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 개개인의 질병 예방은 개개인의 신앙생활만큼이나 중요하다.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신앙상담7

생명,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





'자살의 문법이 있는데 공동체의 실패를 예증하는 것이다'(미국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말이 자살과 관련하여 더욱 맘에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였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하였을 것입니다(빌1:27-2:2; 행2:41-47). 자살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확증인 밥티스마(BAPTISMA 세례, 침례로 불리는)와 교회의 확증인 주의 만찬(LORD'S SUPPER)이 더욱 생각나는 것은 새 생명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 못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심히 곤고하게 되면 자살의 충동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인정받은 모세도 자살을 생각하였습니다(민11:15; 12:3; 요1:17). 또 성도들에게 인내의 본이 되는 자로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였던 욥도 자살을 원하였었고(욥1:1; 7:15,16; 약5:11), 메시야가 오기 전에 보냄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던 엘리야도 자살을 구하였었습니다(왕상19:4; 왕하2:11; 말4:5).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 너무도 확고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출20:13; 요일3:15). **둘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창1:26,27; 9:6). **셋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창2:7; 욥33:4; 시21:4; 36:9; 행17:15). **넷째,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신32:39; 삼상2:6,7; 욥1:21; 시68:20).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행20:28; 고전6:19,20; 엡5:29,30; 벧전2:9). **여섯째,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요3:16; 10:10). **일곱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창1:28; 마18:19,29; 갈2:20).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후로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5:15)

"도대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곧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할 때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것은 왜일까요?

편집위원 이 영 규

예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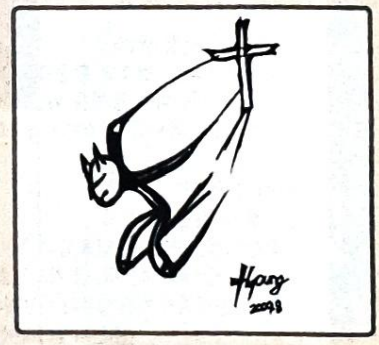
하나님 안에 있는 성공의 유전자

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95%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이론 가운데 영국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의 이론이 있다. 그는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까지 발휘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난 별 볼일 없는 불량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과 함께 자기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명자요 성공자로 창조하셨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성공의 유전자가 있다. 이제는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자.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나의 죄를 십자가에....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9 춘천성시리그 결과】

2009. 7. 27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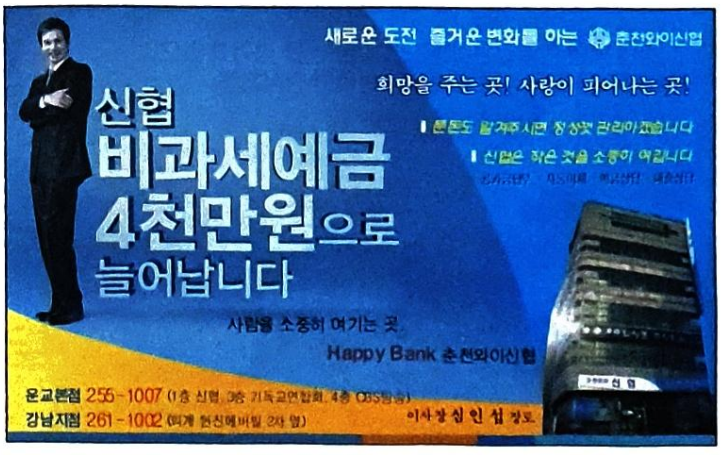
교회	강촌	금산	동부	삼천동	석사	소양	시온	온누리	제일	중앙	지내리	한화	효자	경기 전	경기 승	경기 무	경기 패	득점	실점	득실	점수	순위
강촌		3:3	3:6	1:0	1:1	1:0	4:0	4:1	2:4	2:1	3:4	6:3	2:3	12	6	2	4	32	26	6	20	4
금산	3:3		0:3	1:2	2:5	3:1	2:4	3:0	3:9	1:2	0:1	0:2	1:6	12	2	1	9	21	38	-17	7	11
동부	6:3	3:0		6:2	0:5	5:2	6:1	3:0	1:0	5:1	3:2	6:1	3:1	12	11	0	1	47	18	29	33	1
삼천동	0:1	2:1	2:6		1:6	1:10	0:3	1:2	1:4	1:5	0:7	2:1	2:2	12	2	1	9	13	48	-35	7	11
석사	1:1	5:2	5:0	6:1		4:3	1:1	5:2	6:0	2:2	6:1	3:1	4:1	12	9	3	0	48	15	33	30	2
소양	0:1	1:3	2:5	10:1	3:4		2:2	6:1	0:1	6:2	6:4	3:1	3:5	12	5	1	6	42	30	12	16	6
시온	0:4	4:2	1:6	3:0	1:1	2:2		3:0	1:3	4:1	3:3	2:1	1:4	12	5	3	4	25	27	-2	18	5
온누리	1:4	0:3	0:3	2:1	2:5	1:6	0:3		0:2	1:1	1:4	0:3	0:1	12	1	1	10	8	34	-26	4	13
제일	4:2	9:3	0:1	4:1	0:6	1:0	3:1	2:0		2:0	6:3	4:1	5:2	12	10	0	2	40	20	20	30	2
중앙	1:2	2:1	1:5	5:1	2:2	2:6	1:4	1:1	0:2		4:1	2:2	2:1	12	4	3	5	23	28	-5	15	9
지내리	4:3	1:0	2:3	7:0	1:6	4:6	3:3	4:1	3:6	1:4		3:4	3:2	12	6	1	6	36	38	-2	16	0
한화	3:6	2:0	1:6	1:2	1:3	1:3	1:2	3:0	1:4	2:2	4:3		1:1	12	3	2	7	21	32	-11	11	10
효자	3:2	6:1	1:3	2:2	1:4	5:3	4:1	1:0	2:5	1:2	2:3	1:1		12	5	2	5	29	27	2	16	6

【'09년 춘천미션리그 일정】

일 시		8월 10일	17일	24일	31일
A구장	20시	성전 : 온누리	석사 : 제일	명화 : 중앙	동부 : 소양제일
	21시	동부 : 제일	금산 : 중앙	삼천동 : 온누리	효자 : 중앙
	22시	효자 : 강촌	소양 : 소양제일	효자 : 지내리	강촌 : 제일
B구장	20시	소양제일 : 시온	효자 : 명화	소양 : 시온	금산 : 온누리
	21시	삼천동 : 중앙	강촌 : 지내리	석사 : 소양제일	성전 : 소양
	22시	금산 : 명화	석사 : 온누리	동부 : 지내리	석사 : 시온

※ 춘천미션리그 교회대항 축구대회 안내

- 일 정: 2009. 8월 ~12월 (5개월간)
- 시 간: 매주 월요일 20:00~23:00
- 장 소: 공지천 축구장
- 참가팀: 15개팀
- 진행방법: 풀리그 (17주 105경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여름방학 청소년 문화행사 다채롭게 열려…

여름방학을 맞아 춘천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장르도 다양해 역사체험, 예절, 자기주도 학습법(코칭), 경제교육, 악기연주, 마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 춘천 청소년 문화의 집





춘천 청소년 문화의집은 춘천시에서 설립하고 춘천YWCA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2001년 4월 17일에 개관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 활동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요 내부 활동〉

내부 활동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준다. (동아리릴레이축제, 1318프렌지 페스티벌 등의 공연진행.)

* **청소년 동아리 활동 :**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살린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그들의 꿈과 끼를 살린 건전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돕는다.
* **동아리대상 :** 13~24세 청소년 동아리 중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동아리

〈주요 외부 지원 사업〉

청소년문화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함께 가자 지능 로봇의 세계로", 우수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동아시아체험", 나의 선택 나의 체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청소년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주요 강좌〉

- 학생 및 성인드럼강좌
- 학생드럼 : 매주 토, 일요일 기초 · 초급 · 중급 · 고급으로 진행(인원 120여명)
- 성인드럼 : 매주 화, 목, 금 기초 · 중급 · 고급으로 진행되며 수강인원 60여명.
-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때부터 시작해온 강좌로 매년 "드럼치는 사람들" 공연 진행.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문의: ☎244-1388 / www.ccyc.kr〉

■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춘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춘천지역의 환경 · 문화 · 예술 · 교육 · 복지 공간조성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은 물론 지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춘천 YMCA에서 위탁운영하는 "꿈마루" 청소년수련관은 효자동 강원도과학교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공연장, 상담실, 강의실, 가요댄스연습실, 인터넷실 등을 갖추고 있다.

춘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 23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Summer Camp
  1) 신나는 농촌체험 - · 일시 : 8월 6일(목), 춘천 섬배마을
     · 내용 : 목화심기, 칼라감자캐기, 전통놀이, 물놀이
     · 대상 : 초등1~6학년 30명(35,000원)
  2) 갯벌 캠프- · 일시 : 8월 10일 ~ 12일, 군산YMCA(모항 해수욕장 옆)
     · 내용 : 갯벌체험하기,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 대상 : 초등1~6학년 40명(120,000원)

*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소양 교육 ▶ 팀 구성 ▶ 모니터 활동 ▶ 결과물 제출 ▶ 활동 종료 (중학생 18시간, 고등학생 20시간 / 5명 1팀 활동)

  -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모니터단 /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단
  - 자전거 전용도로 모니터단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문의: ☎244-1388 / www.ccyc.co.kr〉

■ 우리교회 이색공간

Cafe '샘의 곳'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시편 84:6)



만천리 화목교회 건물 외벽에 테라스를 만들어 '샘의 곳' 카페 공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환경을 근처 산책 나오는 주민들의 쉼터로 개방하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부터 운영된 이곳은 누구든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다.

두산 위브 아파트 입구 포장도로 옆으로 작은 흙길을 따라 30M정도 들어오면 길게 널어진 나뭇가지들이 자연스럽게 아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이 교회입구임을 알려준다. 아치 안 침목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이곳에 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이란 나무간판이 매우 인상적이다.

개방은 언제든지 되어 있지만 카페지기(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운영)가 있는 시간은 평일저녁 6~9시까지이다. 하지만 이야기가 무르익으면 시간이 무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메뉴는 커피(공정무역), 녹차, 꿀차, 감잎차 등 평범하다. 나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면 유기농 빵 종류도 준비할 예정이다. 가격은 내마음원이고 나무로 만들어진 모금통에 넣으면 된다. 무엇보다 저녁식사 후 가벼운 책 한권 들고 와서 여름 저녁 한줄기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찬양도 감상하면서 독서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지난 7월 1일 수요예배 후 첫 달 정산을 위해 모금함을 개봉할 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 모금함에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돈이 모여 있었다. 할렐루야!모금 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 비록 작지만 이제 이 돈은 북한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보급하는 일에 쓰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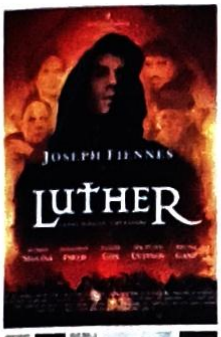
우리 샘의곳 식구들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평안함과 힘을 얻고 가기를 소망한다.



가족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6>

루터 (Luther)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일대기가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를 2003년 독일에서 다시 헐리우드 스타들을 등장시켜 만들었다. 감독은 TV시리즈 FX를 연출한바 있는 에릭 틸. 그는 2000년에 신학자 본 회퍼 전기영화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파인즈가 루터 역을 맡았으며 알프리드 몰리나, 퀴바디스에서 네로 황제 역으로 나온 피터 유스티노브, 브루노 간츠 등 명배우들이 출연하였다.

루터는 종교개혁사에 츠빙글리와 함께 개혁을 일구어내면서 루터주의 개혁을 하였다. 루터주의 개혁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왜곡된 교리들과 규정을 개혁하면서도 초대로부터 내려온 성례 예전과 일부의 전통은 보존하도록 하였다. 루터가 인정한 성례 예전(성사)은 세례식과 성찬식(성체성사)이다. 견진성사에서 유래된 견진례는 입교 예식으로서만 남기고 성례전으로서는 여기지 않는다. 고해의식은 루터도 초기에는 행하였으나 후에 이르러서는 고해의식을 개혁하였다. 루터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는 이신득의 교리이다. 오늘날 루터교(Lutheran)는 전통 성례 예전과 개혁사상을 두루 갖춘 개신교가 되었다.

십자군 전쟁, 면죄부 등으로 부패의 극에 달한 로마 천주교에 맞서 투쟁하던 루터의 모습을 비교적 충실하게 영상에 담은 영화 〈루터〉의 내용은 실제 '루터'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신학을 강연하면서 면죄부 판매가 급감하고, 출어든 면죄부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요한 테첼' 신부가 파견되고, 95개조 반박문을 배포하자 '요한 테첼' 신부는 권한마저 잃고 면죄부의 판매가 더 줄어든다. 95개조 반박문의 주장철회를 요구하자 응하지 않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 노력한다. 그리고 완성된 번역된 성경을 독일 전역에 배포하면서 종교개혁이 활성화 되고 결국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의 화의를 통해 당시 교황 카를 10세로부터 독일의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받는다. 이후 칼빈에게도 영향을 준 위대한 신학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한다.

탄탄한 대본과 박진감 넘치는 연기로 호평을 받은 이 영화는 작년에 나눔나라국민운동본부(회장 박찬수 장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영화수입사인 가나미디어와 함께 교회에서 상영하는 전국 투어에 나서기도 하였다. 〈상영시간 123분〉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 책소개

한길 가는 순례자 (A Long Obedience in Same Direction)

유진 피터슨 지음 | 김유리 옮김 |출판사 IVP, 2001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크게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탁월한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시편 120-134)를 통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험한 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전해 준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불렀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피터슨은 우리의 매일의 삶속에서 새로운 제자도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영성을 찾아다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순례자의 영성을 강조하였다.

피터슨은 제자도를 자기성찰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 섬김, 행복, 기쁨, 소망, 겸손, 순종, 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각 주제와 함께 다뤘다. 이 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도움을 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을 위탁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원천이 될 것이다.

편집위원 조나단 Jonathan Nimal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우체국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7만원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좌전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6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명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임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예당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와이신협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교경협의회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무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춘천홀리클럽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강신희	강옥지	강진옥	강태랑
고순덕	고순지	김관수	김기태
김대숙	김라현	김명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인섭	김복심
김봉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셉	김은주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충찬	김주환
김진심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레희
박인관	박정애	박제지	박종근
박필상	박형숙	배진철	변춘지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지
오의석	오홍수	원희정	유강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윤애지	윤태호
윤홍묵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무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민	이수길	이수향
이순자	이영진	이은수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목	정규시
정미경	정은하	정재균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명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지
지경화	차경자	최계희	최병숙
최상호	최영순	최윤옥	최예석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아	한순수	한학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언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택기	황명찬
황은주	황정섭	유홍천	박덕희

Happy House

Happy House는 우두동에 새로 단장한 요양원이며 모체로는 무지개동산이 있습니다.
춘천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앞쪽에 넓은 잔디밭을 이용한 좋은 분위기의 휴식처가 또 다른 요양원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 아늑한 요양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립니다.



혜택
- 전문인력 요양서비스
- 물리치료, 건강체크 프로그램운영
- 편리한 교통
- 최신실내공간, 넓은 잔디밭

대상
- 노인장기요양인정 1,2등급자 이면서 일반수급자 (의료수급자)

춘천시 지정 노인 요양원
행복의 집
TEL 242-3005, 010 241-2007, FAX 253-6007
011-448-7660
www.rainbowhill.co.kr ▷춘천시 우두동 150-6



우상숭배와 분단

허 문 영 (평화한국 대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008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던 해였다. 신사참배 결의 70년이자, 남북한 체제분단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사회과학의 눈으로 볼 때, 두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는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다.

일제하 1938년 9월 9일 당시 개신교 주류(77.3%, 감리교14%, 성결교3.6%)였던 장로교마저 제27회 총회(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신사참배를 애국적 국가의식으로 규정하고, 솔선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조선교회가 일본 '태양신' 우상숭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후 신전의식과 민족의식을 상실한 조선교회는 신앙양심을 지키려는 이들을 오히려 정죄 치리하였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앞장서 협력하였다. 해방공간에서는 변명하기 바빴다.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진지한 참회의 반성을 드리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신사참배 결의 10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출범으로 남북 체제분단이 시작되었다. 신사참배 결의 20년 뒤인 1958년 12월 북한에서는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기독교가 말살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 신사참배 결의 50년 후, 1988년 11월 평양에 봉수교회가 신축되었다. 물론 당 통일전선부 통제를 받는 교회이다. 신사참배 결의 60년 뒤인 1998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8년 신사참배 결의 70년이 되는 해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참회기도를 드린 것을 전후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과 북한 후계체제 구축설이 나오게 되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신앙심이 높은 솔로몬 왕이었지만 말년에 이방신 우상숭배 행위를 범하여,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기간에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생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깨달은 이사야, 예레미야 등 당시 선지자들은 회개를 선포하였다. 다니엘,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이는 성경연구를 통해 이를 깨닫고 민족의 예루살렘 귀환사업을 성취해 내었다.

오늘 우리도 일제하 조선교회의 신사참배와 민족 분단 및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폐화를 이런 맥락에서 영적 포로생활 70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영적, 사회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하겠다. 한국교회가 이 같은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새로운 민족사의 주체세력인 복음적 평화통일의 '평화일꾼(Shalom Corps)'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TCE 교사대학 1단계
일시: 8. 24 ~ 9. 4 (월 화 목 금 8일)
오전반: 9:30~1:00, 저녁반: 6:30~10:00(20명)
모집인원: 각 반별 선착순 20명, 모집마감: 8. 14(금)
등록금: 12만원(8/8일까지 선등록 10만원)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예스컴 썸머 캠프 <주제: 가라 모세>
•1차 8. 6(목) ~ 8(토), 평화수양관(남양주)
•2차 8. 10(월) ~ 12(수), 충신수양관(마석)
문의: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clove
박진용 간사 010-8901-700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한림아기페 영월의료봉사: 8. 4(화) ~ 8(토)
2) 신입원수련회: 8. 9(주일) ~ 10(월)
3) 광야훈련: 8. 17(월) ~ 20(목)
4) GCTC 29기 수료식: 8. 22(토)
5) 개강세미나: 8. 31(월) ~ 9. 3(목)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3)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일시: 8. 22 ~ 9. 20 책자: 2,500원
문의: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간사 사역회의
일시: 8. 6(목) ~ 8(토) 장소: IVF회관
2) 캠퍼스별 리더캠프
일시: 8. 17(월) ~ 21(금) 장소: IVF회관
문의: 252-5200

◆ **JDM**
1) 제 6차 세계선교대회
일시: 8. 3(월) ~ 8(토) 장소: 대전한남대학교
2) 선교지도자세미나
일시: 8. 10(월) ~ 15(토) 장소: 경주
3) 개강수련회
일시: 8. 20(목) ~ 22(토) 문의: 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번역선교회**
1) 가을학기 리더수련회
일시: 8. 11(화) ~ 13(목) 장소: 미정
2) 비전기도회
일시: 8. 6(목), 20(목)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GBT사무실)
문의: 010-9244-9094 이선희간사 chuncheon@v2025.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특별월드미션
일시: 8. 17(월) 오후7시 장소: 춘천광염교회
2) 비전스쿨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일시: 9월 둘째주부터 12주간, 마감 9. 4(금)
대상: 청년 ·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세대(선교 관심자)
문의: 춘천지부 033)262-1040

◆ **제이워십(춘천인향찬양단) 꽃보다 위십**
일시: 8. 3, 17일(월) 오후7시 장소: 이루어가는교회
문의: 010-9368-9856

◆ **새벽날개 위십선교단 토요위십댄스반**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 부띠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부시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광폭포 앞 15닭갈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마리골하모니(찬양선교)단원 모집**
• 지휘 · 성악발성 · 피아노반주과정 · 문화선교과정 모집
개강: 9. 7일(월), 대상: 목회자,사모,지휘자,반주자,찬양대원,일반성도
장소: 효신 푸른하 교(KBS강원 춘국신 사옥 맞은편, 온의동)
문의: 019-763-8868, 다음카페(마리골하모니) www.hyoshin.or.kr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해 등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문의: 019-9138-4452, 251-4452 남부제일교회 송항순장로

◆ **춘천요양보호사안합의방목자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요양등급판정 안내
문의: 011-9731-0259 사회복지사 신미정)

◆ **자문센인 희망**
• 중고교생의 교복 재활용에 동참하세요(많이 보내주세요).
문의: 242-6091, 010-2245-6091 (Jesusway교회 황관중 목사)

◆ **월드비전 강원어린이합창단 단원모집**
대상: 초등 3학년 ~ 중 3학년 장소: 본 복지관 3층 대강당
연습일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5:30 ~7:00
내용: 각종 행사 위문공연, 정기연주회, 음악캠프
개인 성악레슨(전문발성 코치 선생님 1:1 지도), 귀가 시 차량운행, 간식 제공
문의: 월드비전 ☎254-7244 심효선 사회복지사

◆ **English Worship 영어예배**
일시: 매주 주일 오후2: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겟세마네성전
문의: 최은순 선교사 010-7123-8265

◆ **우암 한지(위 누동) 무료 특 배달합니다!**
※주 1회 정도, 아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문의: 010-9755-1719 강북성결교회

◆ **8.15 광복절연합예배**
일시: 8.16일(주일) 오후7:30분 장소: 춘천중앙감리교회
강사: 김진호 감독(서울 도봉교회 원로목사)
주최: 춘천 교역자연합회

◆ **8월 성시화 연합통성기도회(CCPN)는 각 교회 및 단체 누림회로 인해 닫습니다.**
9월 모임 : 9. 4일(금) 오후7시, 유스아트홀(중앙로)
주관: 성시화운동본부 주재: 교회연합과 성시화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 급 반 : 15명
□ 중 급 반 : 10명 (세잔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 장 소 : 춘천동성교회(팔호광장 축협맞은편)
□ 운 영 : 3개월 코스 (S/A)
6만원(월2만원×3개월)
헌금/우원금으로 실경비 조달
□ 선 교 : 일반 시민 무료
□ 개 강 : 2009. 10. 6 (화)
(※ 중급반 / 현재 접수중)
□ 접 수 처 : 욱림악기사 (☎252-5041)
□ 문 의 : 010-6654-8280
통기타 대중시대 쉽게 배웁시다!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이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예배가 7월 2일(목)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김길룡 목사(순복음하나교회)는 "마음의 소원을 이뤄 받는 비결"(시편 37:1~11)이란 제목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선을 행할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며 "우리에게 성시화의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성시화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각 단체들의 여름행사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회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CCPN) 정기기도회가 7월 3일(금) 오후1시 유스아트홀에서 춘천청년포럼 주관으로 "춘천지역 청년연합운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춘천기독청년포럼 이병철 목사는 "춘천기독청년포럼은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청년들이 지역과 민족, 그리고 열방에 대한 꿈을 꾸고, '인격과 신앙,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청년의 시기에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영적인 균형감각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캠퍼스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어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청년, 캠퍼스사역'과 '바른 기독문화와 선교', '춘천 성시화와 북한 선교' 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 기아대책기구 춘천지역회 이사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춘천지역회(회장 원기배목사) 정기이사회가 7월 8일(수) 오전11시 광장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춘천지역회 서기보고와 회계보고, 강원서부지역본부사업보고(원주 춘천 횡성 영월 정선 태백)가 있었으며, 비전트립과 순방예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청소년만화동아리 전시회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는 춘천시청소년만화동아리 연합회 전시회를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춘천지하상가 이벤트홀에서 개최했다.

춘천복음화와 경찰선교를 위한 연합부흥성회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회장 권기호 목사) 연합부흥성회가 7월 12일(주일)부터 15일까지 오후7시 평화감리교회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CBS TV 크리스천파워특강과 CTS TV '4인4색-성경바로보기'로 유명한 초청강사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는 '생명의 법', '성도의 삶',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능력있는 자'란 제목의 설교로 4일간 은혜를 나눴다.

연합부흥성회는 춘천경찰서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와 평신도교경협의회원 장로 등이 1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여 신도와 춘천시의 부흥을 꾀하고 신앙을 다지는 행사다. 올해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마련됐다.

2009 춘천해비타트 번개건축



무주택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해비타트 춘천지회의 '2009 번개건축'이 7월 27일일부터 31일까지 춘천시 신북읍 천전4리 172-15에서 진행된다. 27일(월) 오후2시 강원대 예술대강당에서 개회식을 갖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대 해비타트 봉사단(지도교수 이명구)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번개건축 자원봉사현장에 참가하여 대학생들의 힘을 보탠다.

이번 번개건축에는 대한항공 53명, 프루덴셜 21명, 강원대, 20명, 이화여대 16명, 명지대 24명, 개인참가자 49명 등 총 183명이 참가하여 4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2개동 8세대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

춘천홀리클럽 울진비전투어



춘천홀리클럽은 지난해 인천홀리클럽을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7월 10일(금) 울진홀리클럽을 방문하였다. 이날 회원 51명은 오전10시30분 봉평제일교회(황순욱 목사)에 도착해서 감사예배를 드렸고, 이어 울진홀리클럽 회장 박진수 장로에게 울진성시화운동 현황을 소개받고 큰 도전을 받았다. 오찬시간에는 박진수 장로가 친히 잡은 싱싱한 동해바다 울진대게와 생선회를 대접받았다. 오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고, 덕구온천과 성류굴로 나눠서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진의 자랑거리,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밀접한 영적 협력관계, 희생적인 헌신봉사활동과 솔선수범하는 삶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성시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취재/ 회장 이학규 장로

■ 북한선교세미나



통일나눔터 주관으로 북한선교세미나가 7월 9일(목) 오후5시 예담교회에서 열렸다. 패트릭 김 선교사(미국)는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사역에 대해 나누면서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라 김일성을 신격화시킨 사이비종교집단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하며,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으로는 북한의 한 지역을 입양하여 유치원, 양로원 등의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식량, 의복, 생필품,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통일나눔터는 북한의 한 지역을 입양하고, 북한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다.

■ 2009 월드비전 기아체험난민걷기대회



월드비전 강원지부는 7월 11일(토) 오전11시 횡성종합운동장에서 월드비전 횡성지회, 횡성군기독교연합회의 주관과 횡성군, 횡성군교육청의 후원으로 '2009 월드비전 기아체험난민걷기대회'를 1,500여명의 횡성군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금액 천만원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울룽게 사업장에 횡성군민의 이름으로 식수펌프를 지원하고, 오백만원은 횡성군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교육비로 지원하게 된다.

■ 직장선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 이·취임예배가 7월 12일(주일) 오후2시 신성교회에서 김창수 감독, 허천 국회의원, 직장선교연합회 증경회장단, 각 기관 신우회 회장들과 신우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양봉남 회장(춘천시청 국장)이 이임하고, 김영래 신임회장(농협중앙회중앙로지점 부지점장)이 취임하였다.

■ 예광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기독교한국침례회 예광교회(담임목사 조영춘)는 효자동에서 퇴계동 983-1, 덕산빌딩 4층으로 이전하고 7월 19일(주일) 오후4시 성전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침례교춘천지방회장 김기만 목사, 춘천지방회총무 강종원 목사, CCF회장 박인관 목사, 교역자연합회 지용찬 목사, 춘성교회 박현종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재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였다.

취재/ 김미경

제64주년 광복절 연합예배

* 일 시 : 2009. 8. 16 (주일) 저녁 7:30

* 장 소 : 춘천 중앙감리교회 (033)259-3000

* 강 사 : 김 진 호 감독



김 진 호 감독 프로필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원수료
목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취득
서울연회 감독 역임
기감 감독회장 역임
현) 감신대학교, 월드비전, 광성학원 이사
감리교 교정선교회 회장
도봉 노인복지센터 운영 위원장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 회장
서울 도봉교회 원로목사

주 최 : 춘천 교역자 연합회

춘천교역자연합회 2009년 임원명단

회 장 : 지 용 찬 목사 (춘천은혜교회)
부 회 장 : 조 영 호 목사 (춘천그리스도교회)
박 인 관 목사 (춘천광염교회)
총 무 : 장 춘 근 목사 (남산교회)
부 총 무 : 박 재 영 목사 (소망교회)
서 기 : 박 종 식 목사 (남춘천그리스도교회)
부 서 기 : 박 상 윤 목사 (주님의교회)
회 계 : 이 정 하 목사 (제자교회)
협동총무 : 김 기 만 목사 (옥산포교회)
박 찬 욱 목사 (새순교회)
최 동 혁 목사 (새생명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